

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조직위원장 여연 스님(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임지암 암주)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 미흡한 점이 많겠지만 넓은 마음으로 격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첫째 날인 17일 오후 1시부터는 차 관련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등이 추천한 300여 제품 중 예선을 통과한 제품 44종을 대상으로 최종심사에 오를 제품을 가리는 공개 품평회가 열렸다. 이날 품평회에서는 10명의 품평위원이 찾았의 상태와 색(色) 향(香) 미(味)를 살피는 관능평가와 차 상품의 패키징(포장) 품질 평가를 거쳐 최종심사에 오를 제품 13종을 선정했다.
대회 이튿날인 18일에는 개막식과 함께 최종심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대회에서 봉황다원(대표 허정홍)의 '세작 월광'이 농림부장관상

“우리차 품질·품평기준 마련에 역점”



7월17일 열린 공개품평회에서 10명의 품평위원들이 차를 직접 맛보며 심사를 하고 있다.



18일 품평결과가 발표된 후 관람객들이 선정된 차를 맛보며 살피는 모습.

사진=박재원 기자

국내 차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차 품평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제1회 대한민국 차(茶) 품평대회'가 7월 17~18일 경북 경주시 보문관광단지 내 현대호텔에서 열렸다. 그동안 지방자치 단체나 개별 단체가 차 품평회를 개최한 경우는 있지만 차 관련 단체가 함께 전국 규모의 차 품평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 스님과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 한국다도협회 정상구 이사장, 한국차문화협회 이귀례 이사장이 공동 대회장을 맡은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의 차인 1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의정 이사장은 18일 열린 개막식에서 대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우리의 차 품평기준을 마련해 대한민국의 명예를 건 세계적인 명품을 키워나가자는 차인들의 의지가 깃든 행사"라며 "부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차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만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7월 17~18일)

색·향·미·패키징 평가 거쳐 13종 선정 봉황다원 '세작 월광' 우수품질상 수상

인 우수품질상을, 천보다원(대표 문평식)의 '천보녹차'가 우수상에 선정됐다. 또한 품질상에는 곡천다원, 다우제다, 대한다업, 보성 신옥로제다, 쌍계제다, 예전농원, 조태연가, 햇차원의 8개 제품이 선정됐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정영숙 교수(부산여대)는 "차 품평대회는 명품을 선정하거나 제품의 우열을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 품질 개선을 위한 품

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사"라며 "앞으로 품평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차 품평기준을 세우나 가겠다"고 심사소감을 밝혔다.
이 밖에도 명원문화재단의 연화다례 시연, 한국다도협회의 가회규수다례 시연과 두리차회, 대구전시회 등이 펼쳐져 차인들의 눈길을 끌었다. (02)730-7444, 홈페이지 www.koreatea.net

▷왜 '품평대회'인가

이번 대회의 조직위원회와 심사위원단이 끊임없이 강조한 부분은 "품평대회는 단순히 명차를 선정하고 차의 품질을 가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차 품평기준을 마련하고, 이로써 우리 차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행사"라는 것이다.
여연 스님은 "최근 급속도로 증가한 소비자들이 양질의 차를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어떻게 선정됐나

이번 대회에 추천된 차 제품은 모두 300여 종. 조직위원회측이 농림부의 협조를 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주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것이다. 제품은 올해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는 첫물차(세작)를 대상으로 했고, 7월 1~15일 판매점을 방문해 직접 제품(500g)을

구입했다.

품평위원과 품평감독위원 역시 공동주최기관 조계종포교원과 하동농업기술센터, 중국 절강성 하주 다업연구소, 전남차시험장에서 추천한 인물로 선정됐다. 품평위원은 중국 농가원 차업연구소 심배화 교수를 비롯해 부산여대 정영숙 교수, 명선자학회 이사장 혜성 스님, 화계재대 홍소슬이 대표 등 10명이 맡았다.

▷품평기준은 무엇인가

17일 열린 공개 품평회는 500여 명의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품평은 예선을 통과한 44개 제품을 블라인드 테스트(blind test, 제품명을 알 수 없도록 제품에 일련번호를 매겨 심사함)로 품평했다.
우선 100g의 차를 품평반에 담아 차의 외형과 색을 살핀다. 다음으로 3g의 차를 품평배에서 5분간 우려낸 후 찻물을 품평완에 따

라 찻물의 색과 향기, 맛을 차례로 심사한다. 마지막 단계는 우려낸 잎의 모양을 살피는 순서. 열저반을 사용해 우려낸 잎을 세밀하게 살핀다. 품평점수는 차의 외형 20%, 색 15%, 향 25%, 맛 30%, 우려낸 찻잎 10%로 배정됐다. 44개 차를 품평하는데 4시간 정도가 소요됐다.

차의 모양과 맛, 향기를 살피는 관능평가에 더해 포장적합성 및 식품안전성 평가도 이뤄졌다.

▷선정 제품에는 어떤 지원이 하게 되나

조직위원회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대량 고정구매와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추도록 돕는다. 또한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백서>를 발간하고 품평대상에 대한 생산환경 조사 등 세부연구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주=여수영 기자



“소박·검소함이 차인의 덕목이죠”

다양한 교육·문화프로그램으로 지역민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포교당(주 지성관). 이곳에는 1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차 모임 '감로다회'가 있다.

수원포교당의 감로다회가 오랜 기간 이어져올 수 있었던 것은 송지섭(68·법명 불일) 회장의 노력이 크다. 일흔을 바라보는 '큰언니'로서의 든든함과 모르는 것은 인터넷을 검색해서라도 알아보는 '열성'으로 회원들을 이끌고 있는 송 회장.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잘 하고 있는지,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며 겸손을 표한 송 회장은 "같이



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수원포교당 감로다회 회원들이 '감로다법'을 선보이고 있다.

인터뷰 송지섭 회장

“대외적 봉사활동 폭 넓힐 것”

일흔을 앞둔 나이론 믿지 않을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감로다회 송지섭 회장.

매주 열리는 교육을 위해 직접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기도 하는 송 회장은 "차에 대해 잘 모르지만, 차는 심성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또한 차는 다양한 영역으로 사고(思考)를 넓혀나가는 데도 좋다"고 말한다

다. "지금까지는 초하루 법회나 부처님오신날 같은 행사에서 차 공양을 주로 해 왔습니다. 이번 봉선사 연꽃축제 참가를 계기로 사찰 신도들만을 위한 봉사에서 벗어나 일반인들에게도 차를 선보일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 폭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수영 기자

2003년도 불교역사를 한눈으로 『현대불교신문 합본 9집』 발간

현대불교신문 2003년 합본집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하 두 권으로 나누어 제작되었으며, 2003년부터 호당 32면으로 증면되어 더욱 풍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신문 합본집은 큰스님 법문, 이해하기 쉬운 불교교리, 생활의 지혜, 불교문화자료 등이 수록되어 있어, 불자들에게 더 없는 불교의 길잡이가 될 것이며, 스님들에게는 수행의 반려자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

- 구성 : 상권 2003년 1월(402호) ~ 6월(427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하권 2003년 7월(428호) ~ 12월(453호)에 발행된 현대불교신문
- 판형 : 신문원형 그대로 (40cm×55cm)
- 절차 : 신청 → 입금확인 → 발송
- 가격 : 상하권 총 80,000원
- 입금계좌(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국민 245-25-0001-4611 | 농협 053-01-236053 | 우체국 010041-01-010042

■ 주문 및 문의

- 전화 (02)737-0090(直) (02)737-8881(代) | 팩스 (02)737-0697
- e-mail : sclee@buddhapia.com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관리부

- 지난 호 구입가격은 60,000원(발송비무료)입니다.
- 지난호는 1998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합본이 신청가능합니다.
- 재고가 많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